

보도 일시	배포 즉시	배포일	2022. 6. 22.(수)
담당 부서	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 규 (043-719-3203)
		담당자	사무관 박상은 (043-719-3224)

<로컬푸드>

농산물 직매장 판매 농산물 수거·검사 결과 발표 - 시금치 1건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, 해당 농산물은 폐기 -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최근 유통 규모가 증가*하고 있는 농산물 직매장(로컬푸드)** 판매 농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수거·검사한 결과,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1건을 적발했습니다.

* 농산물 직매장 매출액 추세: ('16년) 2,607억원 → ('18년) 4,348억원 → ('20년) 7,143억원(출처: 농림축산식품부, 2021년)

** 「농산물직거래법」에 따라 장거리 운송·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지역 농산물(반경 50km 이내 생산된 농산물)을 직접 판매하는 매장

○ 이번 검사 대상은 지역 농산물 직매장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감자, 가지 등 다소비 농산물 73건과 시금치, 셀러리 등 시기별 부적합 빈도가 높은 농산물 107건 등 총 34개 품목 180건입니다.

- 검사 항목은 잔류농약 510종, 중금속 3종(납, 카드뮴, 무기비소), 곰팡이 독소 5종(총 아플라톡신, 오크라톡신A, 제랄레논, 데옥시니발레놀, 푸모니신)등입니다.

○ 검사 결과, 시금치 1건에서 잔류농약 '터부포스*'가 기준치(0.05mg/kg)를 초과(0.21mg/kg)해 해당 농산물은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.

* 터부포스 나방, 잎벌레 등 토양해충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으로 주로 작물 심기 전 토양에 1회 처리하며, 클로르피리포스가 등록취소('21.9월)됨에 따라 대체 약제로 사용 증가 추세

-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직매장의 특성을 감안해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검사횟수를 연 1회 300건 검사하던 것을 연 2회(상·하반기) 520건 이상으로 대폭 늘려 실시할 계획입니다.
 - 참고로 생산 농가는 농산물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농약만을 사용해야 하며, 휴약기간을 지키는 등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-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농산물 소비 경향을 분석·반영해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<붙임> 부적합 현황

붙임

부적합 현황

품목	시금치
생산(수거)지역	경기도 광주시
검출성분	터부포스 결과 0.21 mg/kg, 기준 0.05 mg/kg 이하

